

논산,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

- 26일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... 국방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특화 산업단지로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87만m²)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<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>

- (위 치)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, 죽본리 일원
- (면 적) 870,177m²
- (사 업 비) 1,607억원
- (유치업종) 전자부품 제조업,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식료품 제조업 등
- (사업시행자 및 기간) 한국토지주택공사, 2024년 ~ 2029년

-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* 및 교육**, 연구기관***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,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 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육해공군본부, ** 국방대, 육군훈련소, 육군항공학교, *** 국방과학연구소

- 특히,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위리어 플랫폼(개인전투체계)과 관련된 배터리, 야간 투시경, 전투안경, 방독면, 방탄조끼,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.

-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'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, 완공 시에는 2,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,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“논산,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, 전투지원 물자, 통신전자 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용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송철현 (044-201-370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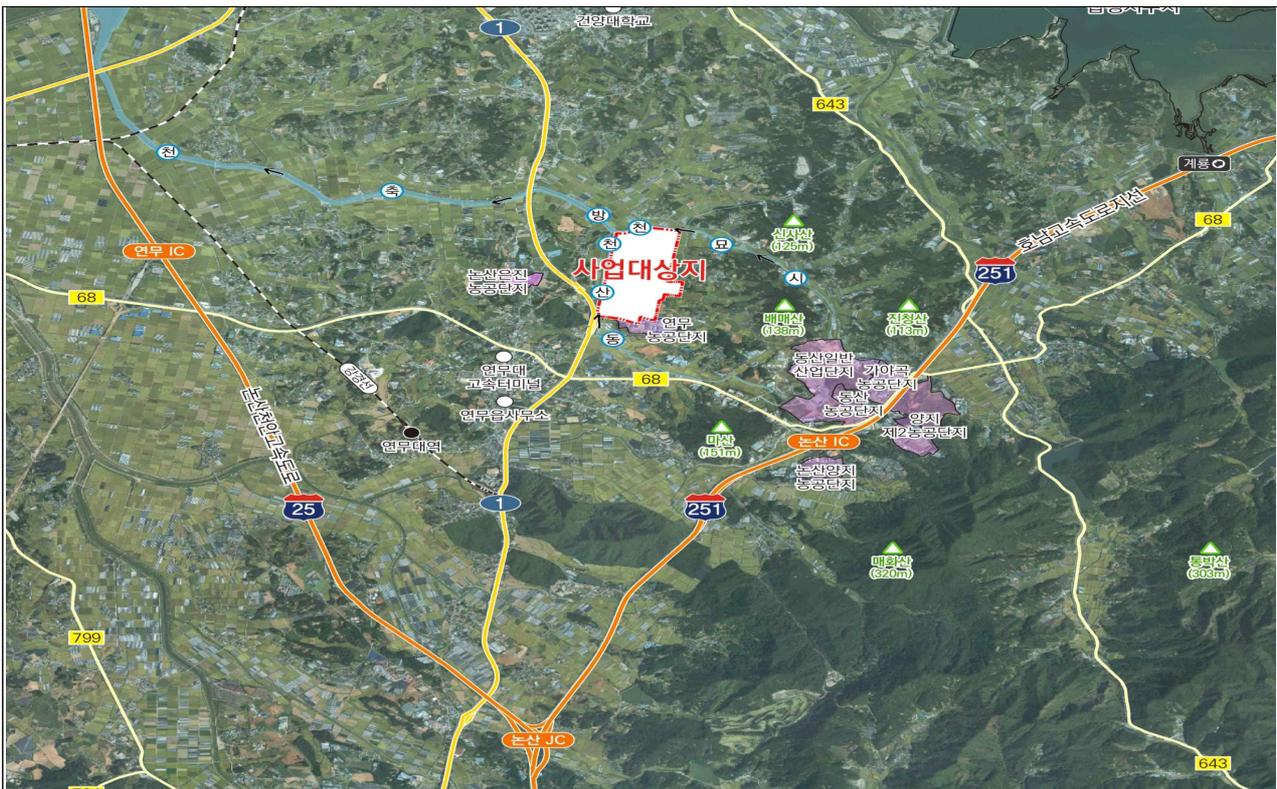
참고 1

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현황 ※ 대응량 파일 별첨

□ 조감도



□ 위치도



□ 개발 구상

- 육군훈련소, 국방과학연구소,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관련 기관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과 국방산학융합원 등 지원기관을 유치하여 국방 Biz-Complex 조성
- 중소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**국방벤처센터 설립 추진** 등을 통해 **국방 R&D 역량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**

□ 유치 업종

- 국방산업 중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으로 무기체계 외의 장비·부품·시설·소프트웨어,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의미
- 전투지원 물자, 전투지원장비(부품), 교육훈련물품 등으로 분류되며 군수품의 92%(27,000여 품목)

*** 전력지원체계 주요 분야**

구분	세부 특화분야	대상 업종
전투지원물자	식량류, 화학물자류, 전기전자 물자류	C10(식료품) 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) C26(전자부품, 컴퓨터 등) C27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등) C28(전기장비) C29(기타기계 및 장비 등)
전투지원장비	감시지원장비, 전원동력장치, 통신전자정비, 측정장비	
교육훈련물품	교육훈련 장비 및 물자류	
핵심기술 분야	난연소재, 방탄소재, 광학기술, 웨어러블로봇, 에너지원, 통신	
교육·연계 기술 부문	교육체계 : VR/AR/홀로그램 연계 부문 : AI	
군수장비 관리	국방정비시스템 (MRO)	

* 국방산업에 대한 별도 업종 코드가 있는 것은 아니며, 일반 제조업 중 국방관련 업종 선정